

修巖 柳軫과 「壬辰錄」考

洪 在 然*

• 目 次 •

I. 導言	2. 爲人과 學問
II. 書誌	IV. 作品
1. 体裁	1. 「임진록」
2. 成冊經緯	2. 「임즈록」
3. 活字化經緯	3. 슈암선싱형장
III. 作者	V. 結言
1. 先系와 生平	

I. 導 言

이 標題의 「壬辰錄」은 古典 散文의 새로운 자료이다.

이 책은 修巖 柳軫(1582-1635)이 지은 「임진록」과 「임즈록」을 비롯하여 木齋 洪汝河(1620-1674)가 修撰한 修巖先生行狀을 번역한 「슈암선싱형장」을 함께 엮어놓은 音字(한글)표기 필사본이다. 이 책이 수암 종택에 줄곧 보배롭게 간직되어 오다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現傳하는 이 책은 앞서 전래되던 책(原典)이 너무 낡아졌으므로 헤어져 없어질까 두려워하여 규중에서 다시 옮겨 베껴서 이어오게 한 轉寫本이다. 이제는 이것마저 오래되어 낡은 책이 되었고 불뚱진 곳이 있는 데다가 또한 草書로 필사되었으므로 그 모습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楷書로 옮겨 쓰야 하겠

* 前 大邱曉星가톨릭大學交 教授.

고,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現代語로 옮기며 다시 校注作業이 뒤따라야 할 실정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키 위하여 이를 해서로 옮겨 쓰고 교주를 붙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이 책의 체재와 옮겨 쓰게 된 경위 등 書誌的 사항을 살펴 이 자료의 문헌적 의의를 밝히고 作品의 내용과 作者의 生涯 및 功業을 살펴 作品의 文學的 의의와 史的實相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書誌

1. 体裁

이 책은 「壬辰錄」이란 표제 안에 「임진록」·「임즈록」·「슈암선싱형장」등 세 개의 글이 합편되고, 책의 앞뒤에 베껴쓴 경위를 밝힌 轉寫者의 記文이 붙었다.

가로 18cm 세로 32.5cm로 된 五針線 韓裝本으로 여기에는 「임진록」 24장, 「임즈록」 28장, 「슈암선싱형장」 11장과 함께 책의 앞뒤에 각 1장씩의 전사 경위를 밝힌 記文이 붙은 모두 65장 130쪽(面)의 책이다. 쪽마다 12내지 16줄(行) 씩으로 고르지 않게 排行된데다가 줄마다 약 30여자 정도를 세로줄로 내리쓴 날림체(草書體)의 필사본이다.

2. 成冊經緯

이 표제의 「壬辰錄」이 이루어져 現傳하기까지는 당시의 士類들에 의한 문필 생활의 慣行으로 보아 先行된 意字本(所謂 漢字本)이 있었고, 이것을 國譯한 音字本(한글본)이 이루어져 온 듯하다.

(1) 意字本の 形成과 傳來

표제의 「壬辰錄」에 실린 「임진록」·「임즈록」·「슈암선싱항장」의 세 음자본은 당시의 사류에 의한 문필 생활의 관행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의자본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錄類의 음자본인 「임진록」과 「임즈록」의 의자본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란 생각을 하게되는 것은 「題日錄後」에

「日錄者何日之所爲 必書二冊所以備觀戒而資改耳 然則曷自庚戌始 前乎此者 歲遠而不可詳 而舊篋有庚戌春日記因而錄之 而其後事亦多出於追記 … 獨其禍變之慘 愈久而愈不忘 瞭然心目間 故今載其始終 日時特詳焉 … 甲寅季夏 上澣書」〈修巖集 卷3. 跋〉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짐작되는 일이다. 위의 「日錄」 「二冊」은 곧 壬辰錄과 壬子錄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일록은 필시 의자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후기를 쓴 「甲寅」이 光海 6년(1614)의 일임을 볼 때 지은이의 33세 되던 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庚戌」에서 쓰기가 비롯된 일록은 壬辰錄이라 할 수 있으니 이 해는 光海 2년(1610)으로 지은이의 29세 되던 해이다. 그러나 「後事」를 「追記」한 것은 壬子錄이라 할 수 있으니 「修巖先生年譜」에

「壬子 先生三十一歲 … 九月葬洗馬公 … 作壬子錄〈記被逮顛末〉」〈修巖集, 年譜〉

이라고 하였음을 보아 지은이의 31세 되던 光海 4년(1612)의 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二冊 中 壬辰錄은 光海 4년(1612) 壬子에 일어난 逆獄事件에 被逮되기 이전에 지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意字本 壬辰錄과 壬子錄은 지은이의 30세를 전후한 시기에 각각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兩日錄이 이루어진 2년 뒤에 後記가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兩日錄 가운데 壬辰錄의 意字本은 전해오는 것이 없고, 다만 피란의

전말을 追記한 音字本이 전해왔음을 알 수 있으니

「癸巳 先生十二歲 … 閏十二月(閏十一月의 誤. 筆者註)自關西還侍文忠公
于京〈後先生以諺書追記避亂首末 示家間婦女 李公在寬翻傳焉〉」〈年譜〉

이라 한 것으로 보아 意字本은 傳함이 없이 다만 音字本만이 전하여 오다가 여덟
째 壻郎인 李在寬(1620-1689)이 이를 翻書(轉寫)하여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壬子錄은 지금 전하는 修巖先生文集의 意字本 「壬子日錄」에 壬子年 3월 15
일로써 原作의 끝을 맺고, 다음과 같은 편집자의 註가 삽입되면서 다시 이어 日
錄이 계속되어 끝맺고 있다.

「按先生此錄有眞諺二本 而眞本止此 李公在寬有翻諺一通 詳悉可攷 今截取
以附于下 以見先生素患行患之始終云爾」〈壬子日錄〉

라 한 것으로 보아 「眞諺二本」 곧 「眞書本」(所謂 漢字本)인 意字本과 「諺書本」
(한글本)인 音字本의 兩本이 있었으나 이미 李在寬(1620-1689)이 이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意字本에 缺落이 생긴 상태였으므로 完本이던 「諺書本」에 의하여
意字本의 缺落을 填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이 現傳하는 意字本 「壬子
日錄」이요 당시의 「諺書本」이 곧 現전하는 「임진록」의 原本이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壬辰·壬子 兩錄의 「二冊」은 처음에는 모두 意字
本으로 지어졌고, 이것이 光海 6年(1614)에 兩日錄이 合併되면서 「題日錄後」가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意字本 壬辰錄은 전함이 없고 다만 壬子錄 만이
缺落되어 전해오다가 李在寬이 音字本에 의하여 補完된 것이 곧 現傳하는 「壬子
日錄」이라 할 수 있다.

(2) 音字本의 形成과 傳來

現傳하는 音字本인 標題의 이 「壬辰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진록」과 「임진
록」의 肉筆原本이 形成되어 傳하다가 뒤에 다시 意字本 修巖先生行狀이 國譯된

「슈암선싱형장」이 合編되어 새로운 附添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남아지자 다시 옮겨베낀 轉寫本이 이루어져 傳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로 「임진록」의 原本 형성은 앞에서 보인 「年譜」의 기록과 같이 壬辰亂의 피란 경위를 뒤에 와서 규중에서 읽도록 하기위하여 「諺書」로 追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은 「題日錄後」에서 보는 바와 같이 庚戌 곧 光海 2년(1610)에 쓰여지던 意字本 壬辰錄이 이루어진 뒤의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임즈록」과 合편되어 原本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은 「題日錄後」가 쓰여진 甲寅 곧 光海 6년(1614) 뒤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임진록」의 末尾에

「이제는 부모 업스시고 동싱¹⁾들 다 죽고 나 혼자 스라셔 병이 드러 아모
 제 죽을 줄 모르니 나 곳 니르지 아니면 비록 즈식이라도 그리 신고하여 죽
 다가 사라는 줄 모를 거시라 일가 사롭이나 예아기 삼아 보게 하여 기록하
 노라」

라고 한 것으로 살펴 알 수 있다. 그러니 이 「임진록」을 지은 것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의 일이고 또한 同氣사이의 伯·仲氏인 親兄이 모두 세상을 뜬 뒤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이 든 때라 하였으니 이는 곧 壬子年의 옥고를 치루게 된 뒤의 불편한 心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諺書」인 音字本 「임진록」이 이루어진 것은 일찍어도 意字本일 「日錄」「二冊」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題日錄後」를 쓰게 된 甲寅 곧 光海 6년(1614)뒤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임즈록」은 이미 「壬子日錄」에 삽입된 編輯者의 補註에서 「眞諺二本」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거니와 「임즈록」 末尾에

1) 동싱 : 동생(同生)이란 현대말의 「아우」란 뜻과는 달리 同氣 곧 親兄弟를 말한 가운데도 兄을 일컫는 것임. 現在도 親庭 오라버니를 일컫어 「오랍동생」 오라버니의 아낙을 「만동생의 덕」(慶北北部鄉俗語)이라 함.

△믿고 살지 믿고 살지 오랍동생 믿고 살지.(民謠. 安東地方)

△동싱형: 親兄, 동싱형: 哥哥(翻譯老乞大 下)

「구월 금음날 선산 감익미히 영장흐니 그적 스설이 대강이라. 임진연 스설과 혼 디 써 즈식들을 주어 제 아비 평싱 설위흐던 줄을 알게 호노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임진록」은 光海 4年 壬子 9월에 있었던 仲氏의 장례를 치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니 修巖先生年譜의 「壬子年 九月에 壬子錄을 지었다」(記被逮顛末)고 한 것과 일치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록」과 「임즈록」이 합편된 肉筆 原本의 形成은 意字本 「日錄」 「二冊」이 이루어져서 「題日錄後」를 쓰게 된 光海 6년(1614)인 甲寅年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은 肉筆本인 「임진록」과 「임즈록」이 合編된 첫 번째의 音字原本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肉筆原本에 木齋 洪汝河(1620-1674)가 修撰(顯宗 5年, 1664)한 修巖先生行狀을 누군가에 의하여 번역한 「슈암선상형장」을 附載한 附添本의 形成이다.

이 「行狀」이 번역된 年代나 譯者가 분명치 않으며 또한 附添된 경위도 확실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부첨본의 형성은 「行狀」이 수찬된 후의 일이므로 현종 5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傳來되던 「임진록」·「임즈록」과 합편되어 하나의 原典을 이루게 된 附添本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줄곧 전해오다가 헐어져 없어질 듯하여 다시 베껴 옮긴 轉寫本의 臺本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첨본의 原典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이 附添本의 成冊은 이에 대한 관심이 깊던 李在寬의 周旋일 듯 하다. 그러한 까닭은 곧 「임진록」을 「翻傳」한 사실이라든가 「壬子日錄」을 「임즈록」에 의하여 缺落부분을 補完한 사실이다. 따라서 「行狀」 國譯도 이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附添本의 形成은 늦어도 그의 歿年인 肅宗 15년 이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은 지금껏 전해오는 標題의 「壬辰錄」이다. 이것은 전해오던 부첨본의 原本을 臺本으로 하여 전사하면서 앞뒤에 轉寫經緯를 밝힌 轉寫者의 記가 붙은 轉寫本이다.

그 記를 옮겨보면

「우턴 뉴평창택 세세 귀듬지물이니 당구 당구하여 유전 천츄하라. 이 칙은 우리 선세 유적이시니 즈손이 극히 공경 등디하는 비러니 본전이 만히 상헌 거술 내 헛포 두엇다가 더 상헌여 브리니 불초 죄 등헌여 여러 히 경영헌여 번셔하야시나 본디 단필의 풍과 환난의 정신이 모황하고 칠십지연의 안역이 회미하니 성즈 아니되여 불성 모양이나 니 성역이 극진하니 디〃 종부들은 스적의 존등함과 필주의 가득헌 정성을 심각헌여 앗기고 앗겨 전지 즈손 만만세지 무궁하라 시세 괴유의 춘의 평창의 동고모 봉더 강 덕은 수회 심요듬 추필셔 호노라.

우리 모녀의 글시라 줄필 헛괴하니 통분 참괴하나 고어의 왈 유즈 불스오 유문 불취라 하니 비록 흥필이나 이 칙의 머무러 내 우리집 쫄노 세상의 잇던 줄 후인이 알게 호노라」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 표제의 「壬辰錄」은 懸川(現 慶北 尙州 中東에 속한 洞名)의 柳平昌宅(江原道 平昌郡守를 지내어 얻은 宅号)의 從姑母 되는 鳳始(尙州市 新鳳里에 속한 洞名, 晋州姜氏의 世居地) 姜宅 母女가 己酉年에 전해오던 附添本을 臺本으로 하여 옮겨 베긴 것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전사 경위를 함께 필사한 「봉더 강 덕」의 따님이 쓴 後記에서 살펴 보면

「정미 납월의 필셔하다. 본 칙 다 써러져 의지 업슨 거술 두고 어마님 다시 벗기지 못헌여 하 걱정하시니 쓰려 하니 갖득 필지 업는 거시 鈔회 모즈 룰가 찍즈와려 잘게 쓰니 더욱 고이호고 이제는 아조 병세지인이 되여 이런 칙당이나 쓰려하면 체증 고약헌여 성실이 쓰지 못헌여 에〃로 하로 鈔당식 닷당식 이러케 쓰니 즈즐이 필셔하다. 필경 조회 남는 거술 잘게 형용업시 그런 줄 절통하나 이제는 어마님 뜻을 밧즈와시니 식힌호오며 평창형님 추필이라 칙지 마르시옵 언제 다시 두로 다 상봉호올고 쉽지 아닐 듯 익웁습」

이라 하여 轉寫 경위와 그 정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두 記文을 살펴보면 표제의 이 「壬辰錄」은 우천 柳氏 宗宅에 珍藏되어 오던 부첩본을 대본으로 한 轉寫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책은²⁾ 憲

宗 11年(1845) 乙巳에 平昌郡守로 도입한 洛坡 柳厚祚(1798-1877)의 從姑母인 柳光得³⁾의 따남으로 晋山 姜遇欽에게 출가한 姜氏夫人 母女가 憲宗 13년(1847)에 전해오던 附添本을 臺本으로 하여 이것을 옮겨 쓰기 비롯한 것이 憲宗 15년(1849)에 이르러 轉寫의 完成을 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 活字化經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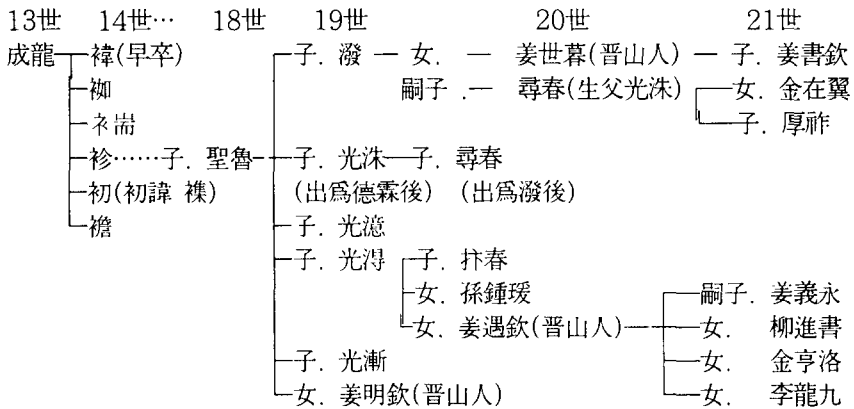
이 책은 愚川の 修巖先生宗宅에 줄곧 珍藏되어 오다가 지난 1973년에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柳時浣⁴⁾ 所藏本으로 소개되었다.

- 2) 가) ① 「乙巳六月移拜平昌郡守」〈洛坡先生文集, 柳道奭識 墓誌〉
 ② 「乙巳移平昌郡守」〈洛坡先生文集, 張炳達撰 墓碣銘〉
 ③ 「憲宗 11년(1845) 乙巳 48세 6월 平昌郡守로 전근되다」〈洛坡先生文集, 年譜〉
 ④ 「류후조(柳厚祚) … 1845년 강원도 평창(平昌)군수」〈愚川과 先賢, 柳時中 編著, 1999〉

위와는 달리 豐山柳氏愚川派世系, 豐山柳氏文忠公西厓派愚川世譜, 豐山柳氏世譜 등에는 洛坡 柳厚祚가 平昌郡守를 歷仕한 記錄이 없으므로 修譜時의 漏記로 볼 수 있다.

- 나) ① 「尋春 … 長水 靑陽 平昌 義城郡守」〈豐山柳氏文忠公西厓派愚川世譜, 豐山柳氏世譜〉 위와 같이 兩世譜에는 江臯 柳尋春이 平昌郡守를 歷仕한 것으로 되었으나 江臯先生 年譜와 그 家狀(柳壽睦 跋음)과 墓碣銘(柳永佑 撰), 豐山柳氏愚川派世系 등에는 그 사실이 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兩世譜는 修譜上의 誤錯인 듯 하다.

3) 豐山柳氏愚川派世系略圖



〈豐山柳氏世譜〉

- 4) 「壬辰·壬子錄이 慶北 尙州邑 西城洞 柳時浣씨 (58) 집에서 洪在然 교수에 의해

그 가운데 「임진록」은 日刊紙⁵⁾에 18回 現譯 連載되었고, 이것이 또한 日語 譯⁶⁾으로 「アジア公論」에 掲載되었으며 國外에서 지어진 壬辰倭亂을 줄거리로 한 日語板⁷⁾ 小説의 素材로도 引用되었다. 그리고 學術誌⁸⁾에 解題와 아울러 原典의 景印과 함께 草書를 楷字化하고 現代語譯하여 全篇을 게재한 바 있다.

「임진록」은 月刊誌⁹⁾에 現譯 連載 되었고, 또한 學術誌¹⁰⁾에 解題와 아울러 原典을 楷字化하여 이것을 現譯 게재한 바 있다.

이 標題의 「壬辰錄」全卷이 原典의 景印과 함께 楷字化되어 掲載된 것은 지난 庚申年(1980)에 刊行된 修巖先生文集¹¹⁾의 4刊 補遺本이다.

Ⅲ. 作者

1. 先系와 生平

지은 이의 諱는 珍이요 字는 季華니 號를 修巖이라 하였다. 姓은 柳氏로서 貫은 豐山이다. 朝鮮 仁祖朝의 文臣이니 宣祖朝 때 領議政으로 壬亂에 再造의 功을 이룬 文忠公 西厓 柳成龍(1542~1607)의 셋째 아들이다. 妣는 全卍 李氏로 縣監 垞의 따님이니 貞敬夫人이 봉해졌다.

발견됐다」〈中央·東亞 兩日報 1973. 1. 28〉

5) 洪在然: 現譯·校注, 「西厓 柳成龍의 아들 柳珍의 亂中體驗記 壬辰錄」〈中央日報 1973. 3. 6. ~26 18回連載〉

6) _____: 「注釋 壬辰錄」〈アジア公論 1974 5. 8 兩月号連掲〉.

7) 金龍煥: 「龜甲船海戰記-海の覇者 李舜臣將軍 一」〈東京 成甲書房 1979〉

8) 洪在然: 「柳珍 作『임진록』解題, 轉寫, 現文譯, 附日譯文, 原典影印」〈國文學研究 7. 曉星女大 1982〉.

9) _____: 「現文譯 壬子錄」〈月刊 中央 1973. 11. 12. 兩月号〉.

10) _____: 「壬子錄」解題, 校注, 轉寫」〈國文學研究 8, 曉星女大 1984〉.

11) 修巖先生文集: 甲寅本(英祖 10年) 4권 2책이 初刊되었고, 癸巳本(英祖 49年) 6권 3책이 重刊되었으며 辛巳本(1941) 6권 3책이 石版으로 補遺 刊行되었고 標題의 「壬辰錄」全卷 原典이 景印되고, 楷字化되어 補遺된 것이 庚申本(1980)인 洋裝 單卷의 4刊本이다.

高祖 諱는 子濫이니 進士로 贈史曹判書요 曾祖 諱는 公綽이니 杆城郡守로 贈左贊成이요 祖 諱는 仲郢이니 觀察使로 贈領議政이다.

修巖은 宣祖 15년(1582)에 京第에서 태어나 仁祖 13년(1635)에 54歲로 한생을 마쳤다.

幼年期(1-14)에는 벼슬하던 아버님을 따라 서울에서 자랐으나 일찍 8살에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고 歸鄉하여서는 居喪을 어른 같이 하였다. 다시 上京하여서는 11살 되던 宣祖 25년(1592) 4월에 倭亂이 일어나자 文忠公은 扈駕하여 西行길에 오르고 妹兄인 韓山人 李文英을 따라 江原·平安·黃海道 등지의 山谷間을 두루 돌며 目不忍見의 참상과 人心의 厚薄을 골고루 보고 겪으면서 皮란의 쓰라림을 직접 체험하였다. 때로는 도적을 만나 一行이 死生의 고비길에서도 從容히 常度を 잃지 않고, 機智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으므로 一行을 탄복케 하였다.

이듬해¹²⁾ 閏11월에 關西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로 해후하는 기쁨을 나누었고 家學을 承襲하여 經史를 익혔다.

이렇듯 幼年期에는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과 史上 未曾有의 戰亂이 빚은 쓰라리고 괴로운 皮란을 겪어야 하는 受難과 試練의 時節이었다.

成年期(15-30歲)에 들자 16살에 忠定公 權穰(1478-1548)의 曾孫女인 縣監 采의 따님을娶하였다. 이 무렵에는 敬庵 盧景任에게 師授하여 修學의 길을 열고 經書를 익히었다. 그러자 17살 되던 宣祖 31年(1598) 겨울에 文忠公이 李爾瞻 등의 所構로 인하여 파직되자, 이듬해에 河隈로 돌아오게 되었으므로 이 때에 文忠公에게 中庸을 受講하며 朝夕으로 經義를 講問하고 古人의 學問要諦를 得聞하였으므로 言外의 뜻을 自得함이 많았다. 그래서 文忠公은 「너와 같은 아름다운 資質을 얻기도 어려운데 退陶의 門에 미치지 못함이 안타까운 일이라」하며 칭찬을 마지않았다. 20살에는 伯父 謙庵 諱 雲龍의 喪을 당하였고 이어 祖

12) 「癸巳閏十二月自關西還侍文忠公于京」〈年譜〉의 「閏十二月」은 「閏十一月」의 잘못임. 이 해(1593)에는 「閏十二月」이 들지 않았음. 〈韓國年曆大典, 韓南植編著, 嶺南大出版部, 1987〉.

母님의 喪을 당하였다. 24살에는 伯兄 掌令公 諱 裯의 喪을 당하였고, 26살 되던 宣祖 40年(1627) 5月에는 文忠公의 下世로 망극한 슬픔을 겪게 되었다. 그동안에 밤낮으로 侍湯하며 嘗糞으로 病勢의 差度를 짐작하는 정성을 다하니 보는 이는 감동치 않은 이가 없었다.

文忠公이 臨終에 子孫들에게 남긴 訓戒의 遺詩와 遺語인 「勉爾兒曹須慎旃 忠孝之外無難事」와 「力念善事 力行善事」를 佩服終身하였다. 29살 되던 光海君 2年(1610)에는 增廣進士 初試에 壯元하고 이 해에 또한 省試에 나아가 壯元하였다. 이 해에는 五峯 李好閔에게 나아가 寒梅詩를 創作하여 「南中佳士」란 찬사를 받았으며 이 무렵에는 壬辰錄을 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成年期에 들어서서 成人의 禮를 갖추고 修學에 專念하여 學理를 터득하고 文才를 발휘하며 誠孝를 다하는 成人期를 이루었다.

壯年期(31-41歲)에 접어들자 비운의 試鍊이 닳쳤다. 光海君 2年 壬子(1612) 2月에 金直哉 등이 謀返한 海西逆獄이 일어나자 여기에 連累되었다는 혐의를 입게 되어 拿命이 내렸으므로 곧바로 被逮되어 京獄으로 압송되었다. 典獄에 들어 獄苦를 치루는 가운데 諸臣이 이어 啓를 올려 病이 중함을 아뢰었으므로 칼을 풀고 拘留하게 되었으며 더욱 李漢陰은 王의 자문에 公이 無罪하다 아뢰어 드디어는 保放의 특명이 내려 옥문 밖에서 留하게 되었다.

이 해 5月에는 孝友 극진한 仲兄 洗馬公 諱 耑이 서울에 따라 올라 와 獄事를 근심 걱정하다가 병이 들어 마침내 卒하게 되자 庭推蒙放 되었으므로 喪車를 쫓아 南下하게 되어 이 해 9月에 고향에서 장례를 치루었다.

31살 때는 玉淵精舍로 거처를 옮기고 「靜坐終日易 操存一刻難」이란 10字를 써 걸고 座右銘을 삼았으며 이 때에는 壬子年의 獄苦를 日錄으로 정리한 壬子錄을 草하였다.

이 뒤로 33살 되던 光海 6年(1614) 경에는 幼年期와 壯年期에 겪었던 참화와 옥고를 日錄으로 정리한 壬辰錄과 壬子錄을 合編하여 戒改의 자료로 삼고자 하였고, 이에 跋 「題日錄後」가 이루어졌다. 이 무렵에는 더욱 어진 이의 箴銘을 誦讀하고 語類의 自警說을 써 自重하며 存養함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다. 祖

上에 대한 崇慕의 精誠을 다 하였고 어진이들과 더불어 天文과 心經을 論하고 理氣說을 講究하였다. 이 무렵에는 菊潭의 李蒼石과 泗水의 鄭寒岡에게 나아가 절하였고, 여러 어진이들과 더불어 自然을 逍遙하였으니 淸涼山에 노닐 遊山日錄을 남기었고, 鄉賢과 더불어 洛江의 汎舟 놀이로 즐기며 詩를 唱酬하였다.

35살 되던 光海 8年(1616)에는 禦侮將軍 世子翊衛司 洗馬를 拜하였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36살 되던 7月에는 別試 東堂 初試에 合格하였으나 省試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37살에는 江山勝概가 아름답고 形局이 좋은 곳을 고르고 또한 學問을 닦기 위한 環境과 立地 좋은 곳을 찾아 尙州의 中東縣 佳士里로 새터를 잡아 移居하게 되었다.

이 곳은 鄭愚伏 李月潤 蒼石 諸先生의 所居와도 가까운 곳이라 講學이 편하였고, 이 곳 어진이들과는 講磨에 힘쓰고 汎舟로 즐기며 作詩하고, 先賢의 社廟를 찾아 謁廟하였다. 한편으로는 營農을 권려하는 農書를 편술하고 鄉約을 마련하여 鄉敬堂을 짓고 冠婚喪祭에 대한 顧助를 하였다. 여기에는 勸善規過의 規範이 있었으므로 온 고을이 이를 오래도록 지켜내려 왔으니 이 고장의 鄉風을 일게 하였고 鄉俗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한 바 되었으니 이 고장의 興學과 勸農으로 鄉民의 生活啓導에 힘 기울이던 時期였다고 할 수 있다.

晩年期(42-54歲)에 접어들자 賢路가 열리어 줄곧 出仕의 기회가 닥치었으나 이를 언제나 사양하려 하였다.

42살이 되던 해에 仁祖改玉이 되자 주위의 어진이들이 서로 推轂하여 宣務郎이 되고 奉化縣監이 特除되었다. 이 곳에 莅職할 때는 앞서 汚吏들이 백성의 재물을 굶어먹는 나쁜 政事 때문에 公私가 赤貧한 지경이었고 거칠고 메마른 땅에 課稅가 무거워서 鄉民들이 그 괴로움을 감내치 못하여 보금자리를 떠나는 이가 늘어나 고을 안이 비다시피 되었으나 土地를 增配하고 賦稅를 덜어 주어 調整하자 되돌아 들어오는 백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모두가 풍족한 살림을 즐겨 누리게 되는 고을이 이루어졌다. 또한 五教를 으뜸으로 삼아 돈독케 하고 教訓이 될 만한 先賢의 말씀을 모아 엮어 이를 읽게 하여 正俗化民을 위한 教條로 삼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고장을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愛民治邑의 功勞

가 朝廷에 알려져 表裏가 下賜되었다.

이 무렵에는 增廣 東堂 初試에 居甲하였으나 이 뒤에는 省試에 나아감이 없이 줄곧 刑曹正郎을 拜하였고 仁祖 5年(1627) 丁卯에 胡亂이 일어나자 號召使 鄭 愚伏의 差定으로 尙州義兵將이 되어 義旅를 糾습하고 隊伍를 더욱 가다듬어 號 令을 엄숙하게 하였으며 洪東洛과 軍糧事를 書論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淸道郡 守로 부임하여서는 興學에 힘을 기울였고, 이어 翊衛司 翊衛 司僕寺 僉正을 拜 하였다. 이어 醴泉郡守가 되었고 이어 陝川縣監으로 赴任하여 敦孝興禮로써 化 民成俗의 으뜸을 삼았다. 晩年의 53살 때는 漢城府 庶尹을 拜하였고, 이어 司憲 府 持平으로 移拜되었다. 이 무렵에는 掌令 姜鶴年이 올린 疏가 反正後의 나라 안 폐단을 條目 條目 들어 直諫한 것이었으므로 王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이를 크게 罪로 삼고자 하였으므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를 가로막고자 啓로써 直諫不諱하여 極力 救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王의 마음을 되돌려 너그럽게 하였으나 올린 啓辭의 ‘率意’ 두 字를 꼬트리잡아 諸臣들이 다시 朝議를 일으키 려 하였으므로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되돌아 왔다.

언제나 벼슬이 내려도 陳疏하여 사양해 마지 않았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允許 치 아니 하였으므로 네 邑을 歷敷하게 되었고, 또한 內職에도 두루 들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오래 머물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곧 節直한 性品에 林泉을 즐기는 雅意로써 宦路에 나아가는 것을 달갑게 여겨 즐기지 아니한 까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언제나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오매 淸廉으로 安貧自樂하였으므로 골골마다 淸德을 기리는 豎碑가 이루어졌다.

晩年의 初期에는 1男 8女를 두게 된 令人 權氏가 卒하였고, 다시 令人 河氏 를 맞아 1男을 얻었다. 때때로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와서는 喪禮諸說을 編次하 였고, 또한 旅軒 張先生을 모시고 江右의 諸士友와 더불어 洛江에서 노닐며 雅 會를 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公暇를 틈 타 文忠公 文集을 刊行함에 힘을 기 울이기도 하였다.

54살 되던 晩年에는 舊居인 河隈를 들러 先壟을 看山하고 陶山書院을 謁廟하 여 돌아오는 길에 榮川의 龜鶴亭에서 感疾로 일지 못하고 仁祖 13年(1635) 正

月13日에 不淑하였다.

終後(1635~)에는 쌓은 學德과 베푼 行誼가 높고 두터워서 그 죽음을 모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吾道의 의탁을 근심하였다. 善山의 朴谷에 賦綴로써 葬禮을 치루게 되었으며 뒤에 다시 軍威의 於義谷으로 移葬하였다.

喪內에 올려진 哀悼의 輓祭文은 旅軒 張顯光(1554-1637)을 비롯하여 月澗 李堧(1558-1648), 蒼石 李堧(1560-1635), 沙西 全湜(1563-1642), 溪巖 金玲(1577-1641), 忘言 金榮祖(1577-1648), 石門 鄭榮邦(1577-1660), 澤堂 李植(1584-1647), 遲川 崔鳴吉(1586-1647), 龍洲 趙綱(1586-1669), 無住, 東洛 洪鎬(1586-1646), 鶴沙 金應祖(1587-1667) 諸賢과 醴泉·善山·陶山·廬江·道南·伊山·三溪·氷溪·屏山·南溪·涑水 等 諸書院의 儒生들이며 諸親姻戚이 올린 것이니 이 가운데는 哀慕와 悼惜이 哀艷하고 曲盡하니 그 人望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孝宗 7年(1656)에는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이 되었고, 이어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이 되었다. 顯宗 3年(1662)에는 士林이 받들어 屏山書院에 從享하였다. 英祖 10年(1734)에 修巖先生文集이 初刊되었고, 이어 增補版이 거듭되다가 지난 1980년 庚申에 標題의 「壬辰錄」 등 諸文獻資料가 補遺된 印刊本이 刊行되었고, 1989년 己巳에는 愚川故地에 遺墟碑가 豎立되었다.

2. 爲人과 學問

美質을 타고나서 穎敏한 才智가 남달랐다. 자라나매 謙恭厚德하고 端正하여 正直하였고 淳朴하며 眞實하였으며 壯麗하고 鄭重하며 溫和하고 良順하여 어질고 德性스러운 기운이 面目에 드러나 君子의 風度를 풍기었다. 誠孝가 극진하였고 兄弟間의 友愛가 自別하였다.

일찍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아가 師事하고 師友를 迎會하여 從遊하며 學問을 講磨하였다. 때로는 山水를 逍遙하며 雅會를 열어 詩로써 唱酬하고 또한 議

政을 論議하는 등 忘年の 交와 忘年の 友로써 폭넓게 사귀는 待人接物이 誠實하였다. 心氣는 항상 거리낌이 없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었으며 世間の 榮利를 멀리하였다. 政事에 임해서는 백성을 食口처럼, 고을을 내집처럼 사랑하고 생각하여 每事를 周密하고 條理있게 처리하여 精妙하고 細密하였으므로 租稅의 錢穀이나 軍事上의 賦稅나 獄事上의 訟事 등은 조금도 느스리지거나 풀어짐이 없이 엄격하고 명백하였다. 백성을 教化함에 있어서도 五教를 教諭하여 그 根源을 두터이 하였으며 風教를 떨쳐 일으켜 人才를 養育하였다.

志操가 높고 맑으며 心性이 빙옥같이 깨끗하였으니 언제나 벼슬을 두고 돌아올 때면 집안이 설령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였으나 安貧自樂하였다. 벼슬길에 오르거나 물러나 집에 居處할 때도 항상 말씀을 아끼어 고요한 가운데 옛 선비가 지닌 純正하고 깨끗한 마음씨의 본보기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生活에는 항상 法度가 엄하였다. 名望이 일고 높아져도 스스로를 숨기고 낮추려 하였으나 남들이 모두 드러내어 우러렀으니 君子の 盛德을 가히 짐작하게 한다.

學問은 放心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要諦를 삼고 格致를 究學의 道로 삼았으며, 謙恭篤實로써 本을 삼았으니 心統과 理氣說의 論議를 비롯하여 歷史와 天文 등을 論辨하였고 鳥類의 生態的 辨說을 한 杜鵑說을 남기었다. 勸農을 爲한 農耕說을 수집하여 이를 담은 渭濱明農記와 古今喪禮의 諸說을 編次한 喪禮諸說 등이 있었다 하나 傳하지 않지만 이는 모두 務實로써 으뜸을 삼은 實學의 精神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긴 詩類는 主로 五·七言의 絶律이 60餘題로서 여기에는 別離의 恨과 閑居의 感懷를 비롯하여 自然의 勝概와 생의 無常 그리고 愛慕 등을 主題로 하여 忤懷한 것이다. 散文類는 日錄·疏·啓辭·書·記·跋·祭文·誌銘·行狀·遺事 등 각종 文型이 망라되었고 說文·諭文·陳情文·叢談·雜錄 등을 남기고 있다. 특히 直諫不諱한 啓辭는 그의 直節을 보이고 있거니와 日錄類의 音字本 壬辰·壬子 兩錄은 手記文學의 白眉篇으로 高評할 만 하다.

그의 文章은 空言하지 아니하고 典實로써 爲主하여 넉넉하고 자세하며 간곡한

가운데 文理가 조리 있고, 깨끗하여 조출한 느낌을 준다고 한 行狀의 品評을 상기할 만하다.

IV. 作品

1. 「임진록」

標題의 「壬辰錄」에 실린 이 「임진록」은 修巖 柳軫이 11살 되던 宣祖 25년(1592)에 일어난 왜란의 피난 생활에서 겪은 쓰라린 체험과 느낀 바 생각들을 29살 되던 光海 2년(1610) 경에 돌이켜 생각하여 日錄體로 정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士類들의 文筆生活에 대한 관행으로 보아 意字本(소위 漢字本)의 形成과 아울러 이 音字本(한글本)이 이루어진 듯 하나 意字本이 傳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 音字本인 「임진록」만이 전하고 있다.

이 「임진록」은 임진년 4월에 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西厓 柳成龍)는 扈從하여 서행길에 오르고 伯父(謙庵 柳雲龍)는 벼슬을 벗고 노모를 모시고 피란의 차비를 차렸다. 修巖은 매부인 韓山人 李文英을 따라 서울을 떠나 當時의 경기도 풍양·양주·영평·포천·가평·양근 등지를 돌아 강원도 화천·금화·회양 등지와 평안도의 평양 근교에 이르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은산·영유·안주·가산 등지를 거쳐 황해도 수안을 지나 다시 이듬해 윤동짓달에 서울로 되돌아와 이듬해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각처로 피란 갔던 일가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이 사이에 겪었던 쓰라린 피란 생활의 갖가지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한 바의 체험한 이야기와 피란 뒤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해후하여 기쁘고 반갑던 마음을 하나 하나 기억을 더듬어 되새겨 본 自傳的이요 自照的인 手記文學이다.

이 작품은 임란이 가져다 준 나라와 민족의 쓰라린 시련과 자신이 겪은 辛苦를 후손으로 하여금 알고 되새기게 하고자 家門秘錄으로 유전케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왜란으로 인하여 일어난 급박하던 朝野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宰相家の 피란 행색이 잘 그려진 가운데서 憂國忠君의 至情과 孝友敦睦을 잘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난민들의 처참한 행색과 왜군의 만행에 대한 目不忍見의 참상을 겪은 듯 실감케 하고 官吏의 횡포와 民心의 厚薄을 살필 수 있게 하였으며 死境을 몇번이고 모면케 한 그의 슬기로운 機智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어려웠던 당시의 세태와 난세가 빛은 인심의 所在를 소연히 그려 준 가운데 자신의 정회를 담아 후인을 깨우쳐 주게 하는 手記文學의 白眉篇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는 간결한 문체로 잘 다듬어진 가운데 향속적 언어로서의 고어휘가 풍부하게 간직되어 당시의 언어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2. 「임즈록」

標題의 「壬辰錄」에 실린 이 「임즈록」은 지은 이가 31살되던 光海 4년(1612)에 金直哉(1554-1612)의 逆獄事件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입고 투옥되어 옥고를 치루고 保放된 전말을 日錄體로 소상히 적어 그 괴롭고 억울함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 日錄은 光海 4년 壬子 正月에 발단된 海西의 역옥사건이 일어나자 이 誣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입고, 다음 달 27일에 뜻밖에 나타난 安東判官에 의하여 막바로 河隈(河回) 본가에서 피체되어 역적의 누명을 쓰고 경옥으로 압송, 투옥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과 옥살이에서 겪은 괴롭고 슬픈 일 가운데서도 동정어린 따스한 인정과 자별한 우애가 빛은 일화를 거침없이 술회한 士類의 自照的인 獄中日記다.

서술한 차례로 보아 서두에는 本家인 河隈에서 뜻밖에 나타난 나졸에 의하여 포박되는 광경을 묘사하고 다음으로는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路邊의 이야기를 술회하였다. 다음으로는 투옥되어 옥살이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獄苦와 그러

한 가운데서도 獄吏나 朝臣들의 동정에 대한 고마운 감회를 담고 있다. 그리고 형제간의 자별한 友誼와 仲兄(洗馬公 諱 沺)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슬화하였고, 해옥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형의 상례를 치르는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다.

이것은 士類의 獄事를 소재로 한 색다른 내용의 日錄類인 獄事記이다. 옥사의 전말이 간결 절실한 가운데 곡진하게 표현 묘사되어 당시의 인심 세태를 엿보게 하고 또한 옥중 생활의 풍속도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實記文學의 佳篇이라 할 수 있다.

구사된 어휘에는 향속적인 고어휘가 담겨어 있어서 당시의 지방색 짙은 옛말씨를 살피는 데도 좋은 자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슈암선싱형장

이 「슈암선싱형장」(이하 「형장」)은 木齋 洪汝河(1620-1674)¹³⁾가 수찬한 「修巖先生行狀」(이하 「行狀」)을 누군가에 의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 行狀의 修撰이 顯宗 5년(1664)이므로 修巖의 歿後 29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번역된 「형장」은 이 뒤의 일이라 할 수 있다. 常例로 보아 修撰者의 翻譯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번역은 필연코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로써 깊은 관심을 기울인 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推定을 하게 되는 것은 修巖의 여덟째 사위인 興陽人 李在寬(1620-1689)¹⁴⁾이 意文本 壬子錄에 缺한 부분을 音字本 「임즈록」에 의하여 意文으로 再譯하여 補添한 壬子日錄을 완성한 것이라든가 「임진록」을 「翻譯」하게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행장의 번역

13) 洪汝河 : 朝鮮 肅宗朝의 文臣으로 字 百源 諱 汝河 號 木齋 또는 大朴山人 또는 山澤齋. 姓은 洪이요 貫은 缶林이다. 光海 12년(1620) 安東府에서 大司諫 無住 또는 東洛 諱 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顯宗 15년(1674)에 聞慶 永順의 栗谷(밤실)에서 55세로 생을 마쳤다. 文匡公 虛白亭 諱 貴達의 來孫이다. 孝宗 5년(1654)에 文科에 급제하여 司諫院 正言, 兵曹正郎이 되었고, 이어 司諫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文章으로 드러났으며 彙纂麗史, 東史提綱, 周易口訣, 儀禮考証, 庸學口義, 四書發凡口訣, 海東姓苑, 木齋集이 있다. 近岩書院에 入享하였다.

14) 李在寬 : 光海 12년(1620)에 나 肅宗 15년(1689)에 70세로 歿하였다. 姓은 李요 貫은 興陽이니 通德郎으로 文簡公 蒼石 諱 垞의 孫이다.

도 그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을 더욱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行狀」의 譯文인 「형장」의 내용으로 보아 서로 가감된 내용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는 마치 「임즈록」에 의한 「壬子日錄」의 補添加減한 手法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行狀」의 수찬자인 洪汝河와는 同年輩임을 감안할 때 이 「형장」이 이루어진 것은 「行狀」을 修撰한 顯宗 5년(1664) 뒤로부터 그가 歿한 肅宗 15년(1689) 이전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또한 修巖의 肉筆本 「임진·임즈」 兩錄의 原本에 譯本 「형장」이 附添되어 第二의 原典을 이루게 된 것도 이와 때를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第二의 原典이 現傳하는 標題의 「壬辰錄」을 轉寫하게 된 臺本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형장」은 「行狀」의 內容인 撰次의 시기와 동기를 비롯하여 修巖의 先系와 生歿을 밝히고 資稟과 才質 및 成長過程, 宦歷, 事件 등을 서술하였고, 學統, 學問과 道德(哲學·思想), 文章, 經綸을 밝히고, 生涯, 行績, 行誼 등을 仔詳하고 款曲하게 서술하였으며 子孫錄을 닦았다. 맺는 말에 앞서 逝世의 징후를 알리는 現夢譚을 술회하여 범상치 아니한 撰文의 緣由를 밝혀 곁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互相間 그 내용이 다소 침삭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나, 번역 행장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V. 結 言

이 標題의 「壬辰錄」은 仁祖朝의 文臣 修巖 柳軫이 지은 「임진록」과 「임즈록」에 木齋 洪汝河가 修撰한 修巖先生行狀을 번역한 「슈암선성형장」을 合편한 原典을 臺本으로 하여 새로 옮겨 베끼고 轉寫者가 책의 앞 뒤에 그 경위를 밝힌 轉寫本이다.

이 책은 修巖의 肉筆本인 「임진록」·「임즈록」이 光海 6년경에 合편되어 原本이 이루어져 傳하다가 顯宗 5년에 修撰된 修巖先生行狀을 그 뒤에 번역한 「슈

암선싱헝장」을 덧붙인 第二의 原典인 附添本으로 珍藏되어 오다가 이것이 너무 낡아 헐어지고 헤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憲宗 13년에 洛坡 柳厚祚의 從姑母인 鳳培 姜宅 母女가 다시 옮겨 베긴 것이다.

現傳하는 이 책은 비록 轉寫本이지만 구사된 어휘가 향속적인 옛스러운 말씨가 그대로 간직된 것으로 보아 轉寫의 臺本이 된 原典인 附添本の 原綴을 충실하게 옮겨 베긴 것으로 생각되므로 原典의 形態와 內容을 그대로 잘 간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임진록」은 壬亂의 피란생활을 素材로 한 체험 實記로서 당시의 時代 社會의 상황이나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므로 倭의 만행과 民心의 所在를 잘 알려 주고 있다.

한 집안의 읽을거리로만 갈무리 될 것이 아니라 壬亂의 민족적 수욕을 일깨워 되새기게 하는 겨레의 읽을거리로 드러내어 빛나게 할 自照的 手記文學의 백미편이라 할 만하다.

「임즈록」은 朝鮮朝 선비의 獄事記란 색다른 내용의 自傳的인 實記文學이다. 그 표현이 절실한 가운데 서술의 내용이 소상하고 곡진하여 당시의 人心 世態와 옥살이의 風俗圖를 잘 그려놓은 옥살이 文學의 佳篇이라 할 만하다.

「슈암선싱헝장」은 木齋 洪汝河의 수찬인 修巖先生行狀을 李在寬에 의하여 번역된 듯한 것으로 譯文行狀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修巖의 家系와 生涯 및 歿後에 이르기까지의 서술을 통하여 그의 爲人과 學問, 行誼와 治績 등을 소연케 한다. 行狀의 原文에 충실한 역문이면서도 얼마간 첨삭된 글이다.

이 표제의 「壬辰錄」은 古典散文의 연구를 위한 語文學의 값진 資料라 할 수 있다.